

월요논단



김성은 제주국제관계대사·전 뭉바이 총영사

인도(印度) 알기

현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정책 중에 신남방 정책이 있고, 그 중심에는 ASEAN과 서남아 지역의 맹주인 인도...

과 사쿰탈라 사이에서 태어난 Bharata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인도가 연방이라는 점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권력을 균점하고 있다는 의미다.

흔히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인도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도의 정치체제를 알아야한다. 인도 헌법 제1조 제1항은 ‘인도는 Bharat이고, 연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열린마당

야외활동의 계절 야생진드기 조심하세요



강민신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은 69세로 고령층이 많다. 계절적으로는 날씨가 따뜻해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들이에 나서는 5월부터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 단풍놀이...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과 들로 바깥 나들이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이 하나 있다.

우리도인 경우 2016년 8명, 2017년 21명, 2018년에는 15명이 환자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주변 발생지역은 제주, 전남, 경북, 강원도 등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 강함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인도는 종교, 인종, 언어, 기후, 지역정치체제 및 문화가 매우 다양하다.

인도중앙정부의 공식어는 힌디어로 인도전체의 43.6%가 사용하고 있으며, 벵갈리, 마라티, 텔루구, 타밀, 구자라티, 우르두, 칸나다가 41%를, 나머지 14개어가 15.4%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는 모두 22개이며, 이중 산스크리트는 사용인구가 2만5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0.002%에 불과하나,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공식어에 포함된 점이 특이하다.

뭄바이(구 뭄뎬) 시민들은 모국어인 마라티를 배우면서, 델리 등 북부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려 힌디어를 배우고 있다. 인도의 상업·금융중심지인 뭄바이에서 전국적인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데, 이때 인도 전역에서 참석하는 사람들 서로가 소통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뭄바이처럼 인도의 지방정부들이 지역어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아주 심각하게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뉴스-in

“판결로 당연 무효” vs “토지반환 무효고시”

제주도·녹색당 ‘무효고시’ 공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녹색당이 예대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무효고시 처분과 관련해 공방. 제주도는 제주녹색당과 토지주가 지난 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후속 조치인 무효고시를 요구하자 8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두 당연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설명.

그러나 제주녹색당은 10일 반박자료를 통해 “토지주들이 소송 없이 토지를 반환받으려면 무효고시를 해야 한다”며 “영리된 정보로 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공격.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서귀포시가 영농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문제 해결을 위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농업인 전문교육시 폐기물 배출방법을 적극 안내. 지난 3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열린 390여명의 전문농업인 대상 교육때 배출방법을 홍보했고, 앞으로 6월까지 이뤄질 6차례의 교육에서도 홍보를 이어갈 계획.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 농경지에 무단 방치되거나 소각사레가 빈번해 농업인 교육때 정확한 배출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

서부중 토지 매수 순항할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시 외도동 일원에 들어설 ‘(가칭)서부중학교’ 예정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협의 매수 절차를 돌입한 가운데 향후 진행과정의 ‘순항’ 여부에 관심.

12일 도교육청측에 따르면 올해 안 토지 매수를 마무리하는 등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부지 매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만큼은 되지만 이를 위한 기대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사설

민간투자 국제학교 국익관점 접근해야

제주 동북아시아 글로벌 교육허브 조성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주영 어교육도시내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백부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려 힌디어를 배우고 있다.

정부는 2006년 12월 ‘제주 영 어교육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유학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영 어교육도시 조성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 JDC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영국의 NLCS, 캐나다의 BHA, 미국의 SJA, KIS유치가 확정됐고, 이들 4개 국제학교가 개교한 후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면서 연간 외화 절감액만도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로 인한 긍정효과가 높게 나오자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지난 2013년 7월 기존 국제학교 4개교외에 순수민간자본형식의 3개교 추가 설립 등을 담은 영 어교육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국제학교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판지를 갖고 나서면서 국제학교 추가 설립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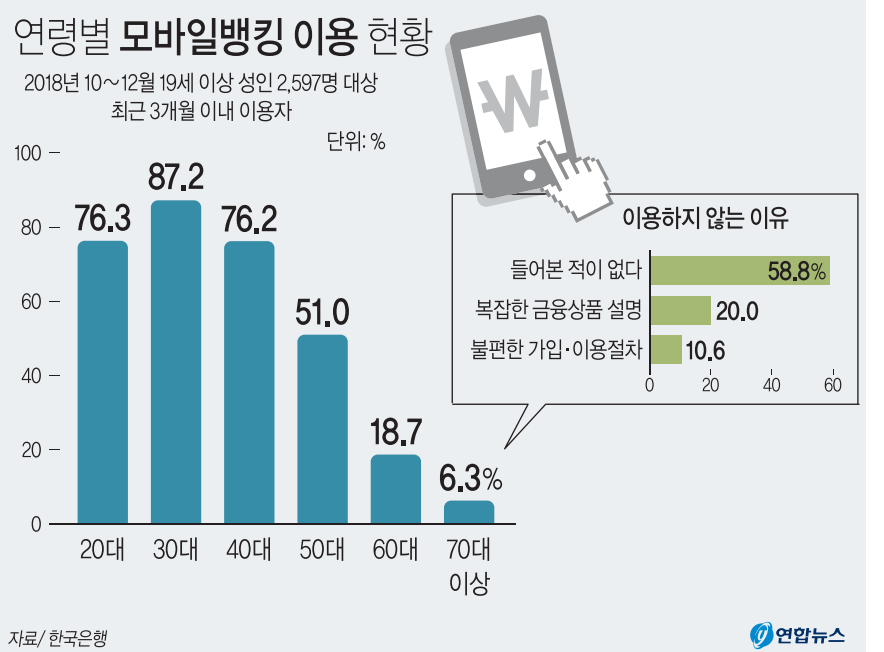
(주)ACS제주가 ‘ACS 제주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설립계획 승인 반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ACS제주의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3차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기존 4개교는 공적 영역의 통제가 가능하나 ACS는 민간영역 학교로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판 스카이크슬” 등장 등 도교육청의 기우와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주)ACS제주의 학사운영 계획과 투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영 어교육도시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철학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없던 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적이고 편협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한 대응적인 시각에서 민간자본 투자 계획과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픽 뉴스



부고 안승진(주)범영엔지니어링 아버지 순환안공 호순(향년 90세)께서 서기 2019년 5월 11일 23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부고 김현규(대학생) 아버지 경주김공 도균(국민건강보험공단·향년 58세)께서 서기 2019년 5월 12일 03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공숙(향년 8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김공 광수(향년 8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6도단191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양연준 위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망 이영수(1940. 7. 24생) 최후주소: 제주시 서문로4길 6-16 (용담일동) 상거지는 2019년 1월 3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19년 4월 29일 제주지방법원 2019노단21호로 상속원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064-796-6947 핸드폰: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해외농업(개발) (영농조합원, 10명모집) 지역: 베트남(다낭, 팡남) 사업명: 한라봉, 레드향 고품질(단감류) 동남아시아수출(96만평) 기상, 토양, 최적지(고속도로 창출)

사무실 임대 위치 한라일보사 1층 (제주시 서사로 154) 전용면적 175㎡, 66㎡ 용도 의원, 사무실, 학원 등 전업종 가능 문의 064-750-2530